

SNUAC Brown bag Seminar Series, FALL 2022

프랑스 소재 한국 문화재: 국립기메동양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

최옥경 (Okyang Chae-Duporge)

병인양요(1866)시 프랑스군이 들고 간 외규장각 의궤의 반환(?)은 최근 외국으로 건너간 한국 문화재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.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의 문화재들은 어떤 경위로 또 누구에 의해서 반출되었으며 어디에 있는 것일까? 개인 컬렉터의 구입에서 외교 선물, 공공기관 기증에 이르기까지 여러 경우가 있는데 이 다양한 양상을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잘 살펴볼 수 있는 곳 중의 하나가 유럽에서 가장 큰 동양미술박물관인 파리 국립기메동양박물관이다. 조볼 수호 통상 조약(1886) 체결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여행할 수 있게 된 프랑스인 샤를 바라(Charles Varat 1842 – 1893)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육로로 여행하며 구입한 민속품들은 기메박물관 한국관 소장품의 기초가 되었다. 그것을 보충한 주한 초대공사 콜랭 드 플랑시 (Collin de Plancy 1853-1922)의 역할 또한 중요하며 특히 그는 파리 만국박람회(1900)의 개최에 큰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하다. 현재 프랑스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유명한 직지도 이 때 전시되었던 것이다. 이후 박물관의 한국관 소장품 중 가장 괄목할만한 것은 2000년대초 현대작가 이우환이 조선말기 장식화 127 점을 기증한 것이다. 이 발표에서는 약탈에서 기증까지, 프랑스 소재 한국 문화재를 국립기메동양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.

최옥경 (CHAE-DUPORGE Okyang)은 현재 프랑스 보르도 몽테뉴대학 (Université Bordeaux Montaigne) 부교수이다. 파리 소르본느 4 대학(Université Paris IV-Sorbonne)에서 미술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파리 국립동양학대학과 파리 7 대학에서 한국 미술사를 가르친 바 있다. 파리 세르클다르 출판사에서 « 이우환 작품의 여백 Lee Ufan, espace non-agi »(2017)을 불문과 영문으로 각각 출간했으며, 같은 출판사에서 강우방과 공저로 « 한국의 문화유산- 불국사와 석굴암 Trésors de Corée, Bulguksa et Seokguram » (2016)을 한불판으로 출판하였다. 최근에는 국립기메동양박물관 소장 한국장식화에 대한 논문들을 썼으며 소부록 « 역사를 따라가는 한국미술 Les arts de la Corée –au fil de son histoire »(2021)을 쓰기도 하였다. 한불문화상 Prix culturel France Corée 2017 을 수상한 바 있다.

Date & Time: November 15, 12:00-13:00
Place: SNUAC #406 (4th Floor)